

1대100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국어를
만들어 드립니다.

- 국어 김도성 T -

[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016년 수능 B형]

(가)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더리 혀야 어이 홀고
헐뜨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샤
못 목수 고자(庫子) 자* 들고 허둥대다 말려는다

- 정철 -

(나)

바깥 별감* 많이 있어 ㉠바깥 마름 달화주*도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쓰릴 썬이로다
비 식여 서근 집을 누라서 곳쳐 이며
옷 버서 문허진 담 누라서 곳쳐 쓸고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화살 춘 수하상직(誰何上直)* 누라서 힘써 홀고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명령을 누 드르며 논의를 놀라 홀고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맛다 계시거니
옥 굵튼 얼굴리 편허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누 타시라 홀셔이고
험 업는 종의 일은 못도 아니 허려니와
도로혀 헤여허니 마누라 타시로다
㉢너 주인 외다 허기 종의 죄 만컨마는
그러타 세상 보려 민망허야 사되나이다
㉣새끼 쇠기 마르시고 내 말씀 드로쇼셔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
진실노 이리 허시면 가도(家道) 절노 닐니이다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 * 동량재 :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 만한 재목.
- * 고자 자 :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

- * 별감 : 사내 하인끼리 서로 존대하여 부르던 말.
- * 달화주 : 주인집 밖에서 생활하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 내야 할 대가를 받아오는 일을 맡아보던 사람.
- * 수하상직 : “누구냐!” 하고 외치는 상직군.
- * 마누라 : 상전, 마님 등을 이르는 말

| | |
|---|---------|
| 1:100 | O, X 문제 |
| 1) (가)에서 ‘기운 집’을 ‘의논(議論)’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방법이 다를 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 X) | |
| 2) (가)의 화자는 못 목수가 허둥대지 말고, ‘동량재’를 빨리 고쳐주길 바라고 있다. (O, X) | |
| 3) (나)에서 ‘불한당 구멍 도적’은 나라에 대입했을 때 ‘왜적’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군. (O, X) | |
| 4) (나)의 화자는 집안이 기울어진 원인을 종에게서 찾고 있다. (O, X) | |
| 5) (나)의 화자는 주인이 ‘집’을 고치기 위해, ‘어른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길 바라고 있다. (O, X) | |

1. (가),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에서는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에서는 직유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④ (가), (나)에서는 모두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
- ⑤ (가), (나)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직분을 망각하여 화자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는 존재
- ② ㉡ : 가까운 곳에 있으며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세력
- ③ ㉢ :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화자가 설득하고 있는 청자
- ④ ㉣ :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행위
- ⑤ ㉤ : 화자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일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유학 이념에서는 국가를 가족의 확장된 형태로 본다.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하듯,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군신(君臣)이 본분을 다해야 한다. 조선 시대 시가에서는 이러한 이념을 담아 국가를 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① (가)의 ‘동량재’와 (나)의 ‘어른 종’은 모두 국가의 바람직한 경영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를 뜻하겠군.
- ② (가)의 ‘기운 집’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국가를, (나)의 ‘기운집’은 되돌릴 길 없이 기울어 패망한 국가를 나타내겠군.
- ③ (가)의 ‘의논’과 (나)의 ‘논의’는 모두 국가 대사를 위해 임금과 신하가 합의하여 도출해 낸 올바른 대책을 뜻하겠군.
- ④ (가)의 ‘못 목수’는 조정의 일에 무관심한 신하들을, (나)의 ‘험 업는 종’은 조정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신하를 나타내겠군.
- ⑤ (가)의 ‘고자 자’와 (나)의 ‘문혀진 담’은 모두 외세의 침입에 협조하며 국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뜻하겠군.

< 정 답 >

X, X, O, X, X

①, ④, ①

| | |
|--|---------|
| 1:100 | O, X 문제 |
| <p>1) (가)에서 ‘기운 집’을 ‘의논(議論)’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방법이 다를 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 X)</p> | |
| <p>해설] X 이 시에서 말하는 ‘의논’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탁상공론이나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된 해석이다.</p> | |
| <p>문제 의도] 학생들이 고전 시와 소설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 고전도 마찬가지로 독해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가)에서는 화자가 ‘동량재를 더리 혀야 어이 홀고’하면서 동량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세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운 집의 의논을 하는데, ‘고자 자’라는 상황에 맞지 않는 물건으로 허둥대고 있다는 부분을 통해서 이들이 하는 의논은 제대로 된 의논이라고 보기 힘들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문학과 시의 독해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비문학은 순서대로 읽어 나가도 되지만, 시의 경우에는 도치를 통한 문장이 많고 문장 순서를 머릿속으로 재배열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비문학과 마찬가지로 현대시와 고전시도 충분히 독해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또한 고전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가 있는데, (가)에서는 ‘하도 할샤 : 많기도 많구나’ 이 용어를 기억하시면 나중에도 다른 고전시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p> | |

| | |
|---|---------|
| 1:100 | O, X 문제 |
| <p>2) (가)의 화자는 못 목수가 허둥대지 말고, ‘동량재’를 빨리 고쳐주길 바라고 있다. (O, X)</p> | |
| <p>해설] X 이 시의 화자는 못 목수를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동량재가 옹게 쓰이길 바라고 있는 마음은 맞지만, 못 목수에게 동량재를 잘 쓰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못 목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p> | |

| | |
|--|---------|
| 1:100 | O, X 문제 |
| 3) (나)에서 ‘불한당 구멍 도적’은 나라에 대입했을 때 ‘왜적’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군. (O, X) | |
| <p>해설] O</p> <p>이 시는 ‘국가’를 ‘집’에 대입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침입하는 ‘불한당 구멍 도적’은 국가로 비유했을 때, ‘왜적(외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p> <p>문제 의도]</p> <p>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과 <보기>이다. 문제를 보고 <보기>를 통해서 시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얻어 온다면 시 독해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이번 O, X문제도 이러한 의도로 문제를 낸 것이다. 3번 문제에 있는 <보기>를 먼저 읽은 학생이라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현대시 O, X에서도 말했듯이, 유추를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단순히 자신의 생각의 확장을 통해서 유추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근거를 갖고 유추를 하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보기>라는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확장하는 연습을 하기 위한 것이다.</p> <p>반드시 중요한 것은 지문이나 문제에 나와 있는 근거를 통해 유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p> | |

| | |
|--|---------|
| 1:100 | O, X 문제 |
| 4) (나)의 화자는 집안이 기울어진 원인을 종에게서 찾고 있다. (O, X) | |
| <p>해설] X</p> <p>화자는 ‘도로혀 헤여흐니 마누라 타시로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집안이 기울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종’이 아닌 ‘주인’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p> <p>문제 의도]</p> <p>이 시에서 ‘험 업는 종의 일은 못도 아니 흐려니와’, ‘너 주인 외다 흐기 종의 죄 만컨마는’이 부분을 통해서 집안이 기울어진 원인이 종에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정답을 O라고 생각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의 화자는 기울어진 원인을 ‘주인’에게 찾고 있는 것을 해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문제가 ‘집안이 기울어진 잘못이 종에게도 있다고 한다’라고 했다면 O가 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비판의 대상과 원인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시에서 중요한 것은 화자가 비판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의 대상 즉, 청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설정하여 시를 읽고, 문제를 푼다면 애매한 서술이 되어 있는 문제 여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 명확한 비판의 대상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p> | |

5) (나)의 화자는 주인이 '집'을 고치기 위해, '어른 중'에게 모든 것을 맡기길 바라고 있다. (O, X)

해설] X

화자는 '어른중을 믿으라'고 말한 것이며, 주인이 해야 할 일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맡기길 바라는 것은 아니다.

문제 의도]

비문학 O, X 문제를 착실히 읽은 분들은 바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먼저 봤을 것이다. 선지에서 항상 나오게 되는 최상급 표현들은 올바른 선지로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해서 보는 것이 좋다. 이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한 선지는 비문학, 문학, 화작문 같이 모든 영역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015년 수능 B형]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새벽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나)

- [A]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 [B]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 [C]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 [D] 「브라운관이 뿔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 [E]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1:100

- 1) (가)에서 ‘어둠’이 ‘스스로 굴복했다’는 점을 통해서, ‘아침’은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알 수 있다. (O, X)
- 2) (가)에서 ‘어둠’이 온갖 물상들을 낳고도,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즐길 수 없다는 점을 통해, 현대 사회 부모님들이 처한 세대에 대한 비판의식을 엿볼 수 있다. (O, X)
- 3) (나)에서 화자는 ‘큰 울음’보다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다. (O, X)
- 4) (나)에서 화자가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라고 표현한 것은, 풀벌레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으로 볼 수 있겠군. (O, X)
- 5) (나)에서 풀벌레들은 화자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군.(O, X)

1.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 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2.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세상은 개혁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3. (나)의 [A] ~ [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 정 답 >

X, X, X, X, O

⑤, ④, ③

| | |
|---|---------|
| 1:100 | O, X 문제 |
| <p>1) (가)에서 ‘어둠’이 ‘스스로 굴복했다’는 점을 통해서, ‘아침’은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알 수 있다. (O, X)</p> <p>해설] X 이 시에서 나오는 ‘아침’과 ‘어둠’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때문에 ‘아침’과 ‘어둠’이 싸웠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p> <p>문제 의도] 일반적으로 ‘시’를 ‘해석’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를 감상한다고 생각하고 암기하는 방식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어둠’이라는 시어가 나오면 대부분의 시들은 ‘어둠’을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어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들이 ‘어둠’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꽃 = 희망’, ‘태양 = 긍정’, ‘어둠 = 부정’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학습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 강의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으로, 시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독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도 여러분들이 ‘암기’식 풀이가 아닌 ‘독해’를 하셨다면, ‘어둠’이 부정이 아닌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를 볼 때도 비문학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되고, 독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p> | |

| | |
|--|---------|
| 1:100 | O, X 문제 |
| <p>2) (가)에서 ‘어둠’이 온갖 물상들을 낳고도,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즐길 수 없다는 점을 통해, 현대 사회 부모님들이 처한 세대에 대한 비판의식을 엿볼 수 있다. (O, X)</p> <p>해설] X 이 시에서 ‘어둠’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시’와 ‘문제’를 통해서 현대사회의 비판의식에 대한 것도 유추할 수 없다.</p> <p>문제 의도]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시나 독해 부분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럴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 하는 것에 대한 대비입니다. 실제로 이번 O, X에서는 현대 사회 부모님들이 처한 세대에 대한 비판의식에 대한 단서는 시 본문이나 문제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대입해 보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비문학 혹은 문학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의 ‘보기’나 ‘지문’에서 상황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인의 생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때문에 항상 ‘지문’에 나와있는 ‘근거’를 가지고 정답을 고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p> | |

| | |
|---|---------|
| 1:100 | O, X 문제 |
| 3) (나)에서 화자는 ‘큰 울음’보다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다. (O, X) | |
| <p>해설] X</p> <p>화자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 속에서 귀뚜라미같이 큰 소리도 있지만 그 속에서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 또한 귀를 기울이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p> <p>문제 의도]</p> <p>비교 대상에 대한 부분이 선지에 나온다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A가 B보다 더’처럼 A와 B의 비교(혹은 C, D, E 추가)가 나타난다면 그 대상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집중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p> <p>비교 대상 문제는 화법, 작문, 비문학, 문학에서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선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p> | |

| | |
|---|---------|
| 1:100 | O, X 문제 |
| 4) (나)에서 화자가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라고 표현한 것은, 풀벌레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으로 볼 수 있겠군. (O, X) | |
| <p>해설] X</p> <p>화자가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라고 표현한 것은, 풀벌레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p> <p>문제 의도]</p> <p>표현 단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변명’과 같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단어들이라면 해당 선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변명’이라는 단어처럼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이 나온다면 옳지 않은 선지로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평소 시험이나 문제에서 볼 수 없는 어휘나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가 나온다면 해당 선지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p> | |

5) (나)에서 풀벌레들은 화자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군.(O, X)

해설] O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이 부분을 통해서, 풀벌레들은 화자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의도]

이 문제는 ‘끊임없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실제로 시험에서는 ‘끊임없이’라는 어휘가 나왔을 경우에는 잘못된 정답으로 나와서, ‘끊임없이 하지는 않았다’라는 해설을 자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에서 근거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면 단순히 자신의 경험에 의한 문제 풀이는 잘못된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끊임없다’라는 단어 자체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휘 자체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지문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